

(2026년 9월 23일 수요일 5면)

오만과 독선 더 이상은 안됩니다



▲김안나 의원
(삼전동·잠실3
동)= 송파구의
회 개원기념식
에서 보인 부
적절한 발언과
시설관리공단
이사장 임명
강행은 구민의

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
크게 무너뜨린 처사이다. 의회와 집행기

관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
반자여야 함에도, 거듭된 우려와 견제
목소리를 외면한 채 불통 행정으로 일관
해 왔다. 송파구의회는 거수기가 아니
며, 65만 구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구정
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엄연한 대표기관
이다.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가볍게 여기
는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, 구민과 의
회 앞에 책임 있는 유감 표명과 진정성
있는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
촉구한다.